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3회 광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게이트볼 경기에서 광산구 선수가 볼을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들의 도전은 아름다웠다’ 광주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폐막

제3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대회가 18일 게이트볼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대회에는 좌식 배구, 탁구, 휠체어펜싱 등 15개 종목에 450명의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들이 참가해 4일간 열전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는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대표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상위 입상을 위한 최종 점검을 펼쳤다. 17일 더원빌딩장에서 열린 불링 종목에서는 심재필(시각장애 1급)이 퍼펙트(300점)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체육의 시민 홍보를 위해 매년 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新新新... 한국육상 연일 신기록 행진

백승호 남 5000m 4년만에 7초 단축 여 800m 허연정 3일만에 또 한국신

한국 육상 장거리의 선두주자 백승호(20·건국대)가 남자 5,000m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백승호는 17일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시에서 열린 호크렌 디스턴스 헬린지 대회 6차 레이스 5,000m 경기에서 13분 42초98을 찍고 5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마라톤으로 전향한 지영준(29·코오롱)이 2006년 작성한 종전 한국기록(13분49초99)을 7초 앞당긴 새 한국 기록이다. 2008년 5,000m에 입문한 백승호는 14분20초대를 뛰어오다 올해 들어 기량이 급상승, 지난달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14분05초91로 개인 최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지난 14일 이 대회 5차 레이스에서 2분04초78을 뛰어 여자 800m 한국기록을 23년 만에 새로 썼던 허연정(30·고양시청)은 이날 다시 한국기록을 0.37초 줄였다. 허연정은 이날 결승에서 2분04초41을 찍고 2위로 끝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한국기록을 0.7초 단축한 허연정은 11월 아시안게임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국영(19·안양시청)도 남자 100m 한국기록을 31년 만에 새로 쓰는 등 올해 트랙 종목에서 한국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져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여자 100m 허들에서는 이연경(29)과 정혜림(23)의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기록이 13초00까지 줄어들었고 여자 5,000m도 여고생 기대주 염고은(16·김포제일고) 덕분에 한국기록(15분38초60)이 5년 만에 새로 수립됐다. /연합뉴스

화순서 21일까지 전국 중·고 유도대회

한국 중·고 유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유도협회가 주관하는 2010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대회가 17일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2개 팀 1900여명의 선수단이 찾아 오는 21일까지 5일간 열전을 벌이게 된다. 17·18일 고등부(남·여) 개인전이 진행되는 데 이어 19일에는 중·고등부 단체전, 20~21일에는 중등부 개인전, 남·녀 (중·고등부) 각 체급별로 단체전 및 개인전이 열린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김효민 슈퍼페더급 잠정 챔피언

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페더급 세계 챔피언인 김효민(27·성산체육관)이 세계 권투협회(WBA) 여자 슈퍼페더급(58.97kg) 잠정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다. 김효민은 17일 오후 충남 예산시 예산중학교에서 펼쳐진 미즈타니 치카(일본)와 잠정 챔피언 결정전에서 10라운드 판정승(3-0)으로 이겼다. 김효민은 이날 스리로 통산 5전 4승(1KO)1무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양궁 2연패 명중

광주여대는 2009년도에 이어 대회신 대학실업대회 단체전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30·60m 1위에 오른 안세진(계약항장 1)은 50m와 70m에서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팀의 2연패를 이끌었다. 조소현(초등특수 3)은 30m 3위를 차지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남부리그 3년연속 우승

‘퓨처스 올스타전’ 북부 7-6 꺾어

프로야구 2군들의 잔치인 ‘퓨처스 올스타’에서 남부리그가 3년연속 승리했다. KIA, 삼성, 넥센, 한화로 구성된 남부리그가 17일 제주 오라야구장에서 열린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삼성 김중호의 스리런 홈런을 앞세워 상무, 경찰, LG, SK로 구성된 북부리그를 7-6으로 물리쳤다. 삼성 외야수 김중호는 홈런을 포함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별종의 별’ 올스타에 선정됐다. 남부가 2-6으로 뒤지고 있던 3회말 김중호가 2사 1-2루에서 중앙 펜스 넘어가는 125m 홈런포를 터트리며 역전의 발판을 닦았다. 남부는 5회 삼성 정형식의 2타점 3루타로 승부를 뒤집은 뒤 추가 실점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7-6 승리를 굳혔다. 2군 리그 홈런 선수를 달리고 있는 두산의 차세대 거포 이두환은 홈런레이스에서 우승하며 홈런왕에 등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창호, 최단 기간 2000국 달성

‘기록제조기’ 이창호가 역대 최단기간, 최연소 기록으로 2천국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이창호 9단은 18일 서울 흥이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 6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강동윤 9단과 결선 2국에 출전하면서 프로 통산 2천국을 달성했다. 1986년 7월에 프로가 된 이창호는 입단 24년만에 2천국을 돌파하며 이 부문 종전 최고기록인 조훈현 9단의 38년 2개월을 무려 14년 2개월이나 단축했다. 또한 35세11개월의 나이로 대기록을 세우며 역시 조훈현의 최연소 2천국달성 기록(47세 9개월)도 함께 깼다. 1986년 8월 조영숙 초단(당시)과 제 62회 승단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른 이창호는 1988년 4월에 김일환 6단을 상대로 100국을 돌파했다. 1992년 7월 응씨배에서 루이나이웨이 9단과 대국하며



프로데뷔 6년만에 500국을 돌파한 이창호는 1997년 5월에 조훈현 9단을 상대로 대망의 1천국(제7회 비씨카드배)을 달성했다. 2004년에는 제17회 후지쓰배(대왕 8단)에서 1천500국을 돌파하며 최단기간 최다대국 기록을 경신했었다. 이창호의 2천국 달성은 입단 24년 동안 평균 83경기에 꾸준히 출장해 이뤄낸 대기록이다. 한 시즌동안 정해져있는 경기 수에 출장하는 축구나 야구와는 달리 바둑대회는 이길수록 대국수가 많아지는 토너먼트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국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프로잡는 아마!

정연진 실버메달 획득 브리티시오픈 컷 통과

제139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정연진(20)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실버 메달을 획득했다. 18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코스에서 열린 3라운드까지 4인더와 212타를 쳐 선두에 11타 뒤진 공동 12위에 오른 정연진은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컷을 통과했다. 최종 4라운드를 마치고 실버 메달을 받는 정연진은 6월 브리티시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125년 대회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에 올랐었다. 정연진은 “이번 대회 목표가 실버 메달이었다.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4라운드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명안내

Table with multiple columns containing names and brief biographical information or news snippets.